

전남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심화... ‘분만 의료’ 위기

평균 연령 59.7세...전국서 두번째 높아

4년새 3.7세 급등...30대 이하 4명 불과

소병훈 “분만 인프라 국가 필수 공공재로”

전남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달하고 청년 의사의 지방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분만 및 산과 의료체계가 의사들의

‘자연 은퇴’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 주요 시·도의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환갑(60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경북이 60.7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했으며, 전남 59.7세, 전북 59.2세, 충북 58.7세, 강원 58.4세, 경남 57.6세,

충남 57.1세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강원은 3.8세(54.6세→58.4세), 전남은 3.7세(56.0세→59.7세), 경남은 2.9세(54.7세→57.6세), 충북은 2.8세(55.9세→58.7세), 경북은 2.5세(58.2세→60.7세)로 의료 현장의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분만 현장을 책임져야 할 20~30대 젊은 전문의의 지방 유입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30대(30대 미

만 포함) 산부인과 전문의는 서울(262명)과 경기(190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지방도 단위 지자체의 30대 이하 전문의는 전남 4명, 경북 5명, 세종 5명, 강원 7명, 전북 7명, 경남 7명, 충남 8명 등 전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50~60대 이상 고령 전문의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지방에서는 분만실과 응급 산과 수술실을 넘겨받을 후속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환갑을 넘어서고, 도 전체를 통틀어 청년 의사가 4~5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역 분만 의료의 세대 단절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는 문 닫는 분만실과 떠나가는 의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분만 인프라를 국가 필수 공공재로 지정하고 권역별 응급 이송망 구축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7일 누리호 5차 발사...막바지 준비 분주

향우연, 조립 장면 공개...주요 시험 진행

오는 6일 발사대 이송·기립·기능 점검

오는 10월7일 5차 발사에 나서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1·2단과 3단 기계적 총조립을 마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누리호는 주요 시험을 마치면 10월8일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하며, 최종 점검을 거쳐 7일 오후 12시23분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일 전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진행된 누리호 조립 장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서 연구진은 누리호 1·2단과 3단을 치구에 장착하고 바둑 레일로 단과 단을 만나게 한 다음 분리장치를 장착했다.

이후 발사체 내부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이어진다.

누리호가 발사대로 오르기 전날인 5일에는 누리호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싣는 작업을 하루 간 진행한다.

6일에는 조립동으로부터 1.8km 떨어진 발사대로 누리호를 옮긴 후 발사체를 기립하는 장치인 이렉터를 사용해 누리호를 발사대 위에 세우게 된다.

이후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탱크 역할을 하는 ‘엄밀리칼 타워’에 연결해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발사체 기능도 함께 점검한다.

발사 운용이 시작되는 7일에는 추진제 충전을 위한 점검과 헬륨 충전을 거치게 된다.

이들 점검을 모두 통과해 7일 발사 10분 전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되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5차 발사는 자정 넘어 이뤄졌던 4차 발사보다 12시간 빠른 오후 12시23분으로 예정된 만큼 발사 준비와 운용을 시작하는 시간 모두 이른 시간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구례서 우리밀 상품 살펴보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구례밀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우리밀

가공공장에 방문해 생산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면 ‘전남광주 통합 첫 예산’서 계속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시의 성장 기반 마련을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주의의 모범인 전남광주가 통합의 모범이자 이제 메가성장의 모범이 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예산을 당정과 지방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풀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으로도 다 같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남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인 만큼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미래산업의 세계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엠코 “폐수처리 지원 큰힘”闊시장에 감사 서한

광주 추가 투자사업 책임있게 추진

闊 “인허가 등 후속 절차 지원” 회신

광주사업장 추가 투자에 필요한 폐수처리 방안을 요청했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의 행정 지원에 공식 감사 서한으로 화답했다.

엠코는 광주사업장 추가 투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특별시는 시설 확충과 인허가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진 엠코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민형배 시장에게 ‘광주사업장 추가투자 관련 폐수처리 지원에 대한 감사’ 공문을 보내 특별시와 장성군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문에는 특별시와 장성군의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 사업 업무협약’으로 추가 폐수처리 용

량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엠코는 “기업의 투자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신 전남광주 특별시의 적극적인 지원은 당사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특별시와 장성군이 보내준 신뢰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주사업장 투자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폐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 인허가, 운영방안에 대한 후속 협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시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코의 공식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길을 내겠다. 투자가 막히는 곳이 있다면 행정이 빠르게 풀어나가겠다”며 “폐수처리시설 확충부터 인허가, 운영방안까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변은진 기자

순천 선암사 ‘측간’ 국가문화유산 됐다

국가유산청, 사찰 해우소 3곳 첫 지정

국가유산청은 30일 ‘순천 선암사 측간’(사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우소(解憂所)는 사찰에서 화장을 달리는 말로, 승려 공동체의 규범과 수행 문화가 반영돼 사찰의 생활 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1882~1982)이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심이나 걱정을 다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초기 입지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3곳 모두 지붕 종소리 하부에 남아 있는 상량



목서를 통해 건립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선암사 측간은 ‘조계산선암사사적’(1704)에 기록된 ‘청측’과 일제강점기 선암사 전경 사진, 1928년 수리 내용을 담은 상량 목서 등을 통해 건립 및 변천 과정이 확인된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3곳 모두 192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오복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작하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30분 국도변 공장 반값매매]

○ 곡성읍 국도변 계획관리 4,000평
공장3동, 사무동, 사택동 등 5개동/지붕태양광설치
급매22억(은행융자16억) 현금6억 인수가능

*** 은행이자자는 태양광에서 충당하고 남습니다
무일해도 돈이되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아파트 급매물]

○ 산수동568-1 두암타운 대단지 로얄층47평
방4 욕실2 남향 앞뒤베란다 [급]급처분 2억7,000

○ 유동 모텔(허가권있음)상업지56평 5층건물210평
객실20개 모텔, 원룸, 사옥, 사무실, 생숙등 최적
[급]급매 2억9,00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228-0990, 010-4601-1390